신종플루가 바꾼 송년 풍속도

대형 행사 잇따라 취소 호텔업계 예약 '뚝'

"술잔 돌리는 폭탄주 사양…접시 사용할 것"

포털 설문 "송년 모임 변경했다" 절반 넘어

시골 중학교 친목회장을 맡고 있는 회사원 이모(29·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최근 "송년모임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회원 20명에게 보냈다. 이씨는 "신종플루 사망자가 계속 나오면서 아이를 둔 회원들은 송년모임 참가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모임을 연초로 미루자는 의견과 회원의 집에서 치르자는 2개의 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 김모(36)씨는 송년모임을 줄이는 대신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신만의 비법을 사용한다. 테이블에 놓인 오이나 고추 등을 잘게 썰어 자신의 컵안에 넣어 '잔이 바뀌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김씨는 "직업 특성상 만나야할 사람이 많은데 술자리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보다 술잔이 바뀌지 않도록 노력한다"며 "어려운 손님을 상대할 때는 술잔에 뭔가를 넣어 구별하는 게 실례인 것 같아 폭탄주를 제조하는 사람의 손만 뚫어지게 쳐다 본다"고 말했다.

신종플루 여파로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가 크게 줄고 행사 참석 인원마저 급감하면서 호텔 등 관련 업계가 울상이다. 연말 '대목' 경기는 실종되다시피 한 상태다.

광주시 남구 프라도호텔은 12월 행사 예약률이 평년에 비해 4분의 1 가량 줄었다. 이 호텔 관계자는 "평년과 비교하면 12월 행사 예약률이 70%선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사 참석률도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서구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도 사정은 비슷하다. 호텔 측은 "예약률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신종플루 여파로 전반적으로 행사가 줄어든 데다 최근에는 대규모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23일 취업 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닷새 동안 직장인 1천2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신종플루로 인해 송년모임 계획을 변경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6.1%(719명)에 달했다. 또 '올해 계획하고 있는 송년모임 횟수'는 평균 2.5회로, 지난해(4.5회)의 55%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송년모임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264명)를 대상으로 그 이유(복수응답)를 물은 결과, '신종플루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가 37.1%(98명)를 차지했다.

'송년모임에서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에 대한 응답은 ▲손 씻기 등 위생관리(39.4%) ▲술잔 돌리지 않기(29.4%) ▲개인접시 사용(17.2%) ▲마스크 착용(2.9%) 등의 순이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철없는 모기 잡아라" 광주시 북구는 겨울에도 활동하는 모기를 없애기 위해 23일부터 한 달간 아파트와 대형건물, 정화조, 하수도 등 1천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방역활동에 돌입했다. 방역요원들이 모기 서식지로 추정되는 정화조에서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쌍촌주공 재건축 시공사 선정될까

시 건축심의위 의결 … 광주 건설경기 척도 될 듯

34년 된 쌍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규모(513세대)가 작은데다, 복잡한 사전 절차가 끝나 건물 신축만 남겨두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은 지역 내 건설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23일 지난 2003년 북구 운암주공 2단지 재건축이 승인된 지, 6년 만에 안건으로 상정된 '쌍촌주공아파트 재건축계획'에 대해 단지 서쪽도로 불법 주정차 방지 방안 강구 등 6가지 사항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쌍촌주공아파트는 1975년에 건설됐으며, 전용면적 39.73㎡의 5개 층 300세대로, 이번 재건축을 통해 2만9천573㎡ 부지에 17~24층, 513세대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재건축 계획에는 인근 단독주택 13세대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07년 사업인가를 얻은 광산구 송정 주공아파트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이나 주거환경 등 주변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데다 소규모여서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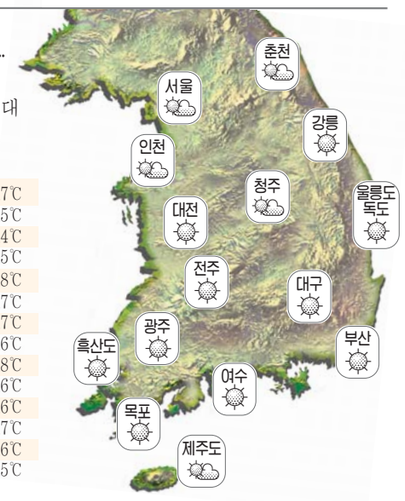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6분 해짐 17시 22분 / 달뜸 12시 32분 달짐 23시 54분

노오란 은행잎 밟으며…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 음	3/17℃
목 포	맑 음	5/15℃
여 수	맑 음	7/14℃
완 도	맑 음	4/15℃
구 례	맑 음	-2/18℃
해 남	맑 음	1/17℃
장 흥	맑 음	0/17℃
고 흥	맑 음	1/16℃
순 천	맑 음	2/18℃
영 광	맑 음	3/16℃
진 도	맑 음	3/16℃
전 주	맑 음	3/17℃
남 원	맑 음	-3/16℃
흑산도	맑 음	8/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먼바다	남동~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0.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밀물	썰물
목포	06:09 19:00	11:33 --:--
여수	01:08 13:54	07:00 20:4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날 씨						
최저/최고	5/17	4/17	5/15	3/15	4/13	4/13

"송년회 재래시장 식당 이용을"

광주시, 자치구 등에 공문

광주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은 물론 각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에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장소로 재래시장 내 식당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최근 각 실과 및 자치구, 유관기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고 재래시장 내 식당 상호와 전화번호를 전 공무원들에게 공지했다.

현재 광주지역 재래시장 16곳에 성업하는 식당은 138곳으로, 시는 송년회뿐 아니라 실·과 모임과 동창회 등 각종 모임장소로 값비싼 일식집 등보다는 재래시장 식당을 적극적으로 애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안은 지난주 간부회의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이 제안했으며, 박 시장도 연말 모임시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 내 식당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날개 부러진 큰고니 구조

장성군 황룡강서 … 치료 후 야생으로 보낼 계획

날개가 부러져 무리에서 이탈된 채 강을 배회하던 천연기념물(제201호) 큰고니가 주민의 신고로 구조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3일 '날개에 부상을 입고 황룡강을 배회하던 큰고니가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지난 19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큰고니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인 큰고니는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한 채 장성군 황룡강에서 이틀 동안 배회하고 있어 저체온증으로 폐사가 우려됐었다. 구조대는 보트 등 구조장비를 이용해 큰고니를 물에서 꺼내 전남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했다.

정밀검사 결과 큰고니는 우측 날개의 오훼골(날개 뼈의 일부)이 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큰고니의 뼈가 아물면 재활 훈련을 거친 후 야생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수능 또 복수정답

평가원, 지구과학Ⅰ 19번 ①, ③ 정답 인정

지난 12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인 지구과학Ⅰ에서 또다시 답이 두 개인 문항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Ⅰ 19번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며 "당초 발표한 정답 ③번 외에 ①번도 답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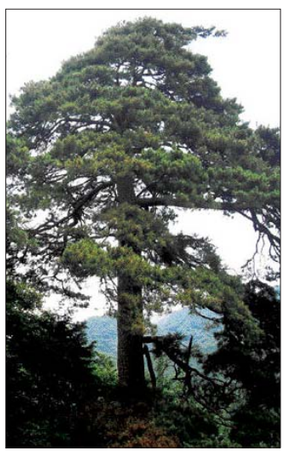
지구과학Ⅰ 19번은 "2009년 7월22일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간 달의 본그림자 궤적과 이동방향을 나타낸 그림을 보고 A, B, C 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식 현상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ㄱ,ㄴ,ㄷ에서 고르라"는 문항이다.

/연합뉴스

'광주 최고령' 화암마을 소나무 고사위기

수령 520년 市 보호수

인근주민들 대책 호소



광주시 북구 화암동 화암마을에 자리한 520년 된 소나무가 고사할 위기에 있다며, 인근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007년 '시 보호수'(2007-2)로 지정된 이 소나무는 광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매년 초 이 나무 아래에서 당산제를 지낼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다. 주민 문병준씨는 "지난해부터 솔잎이 갈색으로 바뀌고, 병든 기색이 역력하다"며 "약을 투입하거나 병충해를 막아줘야 제 상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보호수 관리를 맡고 있는 북구청에 화암마을 소나무의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대처를 취하도록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